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Global smart
Healthcare
Industry Trend



FOCUS

미국, 확진자 접촉 경고 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CONTENTS

01

포커스

- 미국, 확진자 접촉 경고 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1
-

02

디지털 헬스케어

- 미국, AI·ML를 활용하여 만성질환 관리 개선 추진 4
 - 미국, 농촌지역 원격의료 서비스가 직면하는 장애요인 4
 - 영국 MHRA, 소프트웨어 및 AI 기반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프레임 제공 5
 - 제약업계, 고객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변혁 필요 5
 - 디지털 기술, 보건의료 분야의 불공정성 문제에 도전 6
 - AI, 임상치료분야의 적용 실태 6
-

03

4대 보건산업

- 미국 Merck, COVID-19 최초 경구용 치료제가 입원율 약 50% 감소 7
 - 미국, 팬데믹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5대 계획 발표 7
 - 유럽 EC, HealthyLifestyle4All 캠페인 개시 8
 - 유럽 EC, 보건의료시스템 접근성을 측정하는 도구 개발 필요성 강조 8
 - WHO 유럽, COVID-19과 대응과정에서 얻은 교훈 제시 9
 - 아프리카, 의료 환경의 변화와 의료기기 비즈니스 가능성 9
 - 화장품 산업, 일본과 한국의 동향 비교분석 10
 - 동남아시아 국가들, '위드 코로나' 정책을 추진 10
-

- 접촉 통보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비용은 비영리단체가 공급하는 경우 무상 공급에서부터 70만 달러까지 다양하며, 애플리케이션을 홍보하는 마케팅 비용은 38만~320만 달러이며, '21년 6월 기준 다운로드 횟수 역시 20만~2백만건 이상으로 다양하게 실행

[2] 확진자 접촉 통보 애플리케이션의 문제점

- GAO는 확진자 접촉 통보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을 저해하고 애플리케이션 사용의 효과를 제약하는 문제점들을 검토·분석하여, △측정의 정확성 △프라이버시와 보안 △채택의 확대 △인증 코드의 발급 △효과성의 증거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

□애플리케이션 사용의 문제점□

이슈	주요 내용
측정의 정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와 확진자 접촉의 측정에 대한 기술적 한계에 기인하는 부정확한 통보 가능성 •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공공의 우려
프라이버시와 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러한 우려감은 부분적으로 독립적인 프라이버시와 보안 평가가 결여되어 있고, 연방정부 차원의 법적 보호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채택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자 접촉 통보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와 사용에 대한 공공의 관심 부족
인증 코드의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플리케이션 사용으로 확진자 밀접 접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 코드의 신속한 발급에 상당 시간이 소요
효과성의 증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이 가져오는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의 제약

[3] 애플리케이션 사용 확대를 위한 분야별 정책 방향

- 정책 입안자들은 기술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연구개발 촉진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효율적인 투자를 집행하는 것이 필요

- 기술적 제약에 대한 연구는 애플리케이션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다운로드와 사용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며,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형성은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의 개선을 통합하고 혁신을 확산하는데 기여할 전망
- 그러나, 관련 연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이미 관련 애플리케이션이 다양하게 출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이 효율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상존
- 또한 현재의 애플리케이션의 개선에 투입되는 연구개발 노력이 다음에 다가올 수 있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보장을 하기 어렵다는 점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투자를 집행하는 것이 필요

■ 정책 입안자들은 확진자 노출 통보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되는 단일한 프라이버시와 보안 기준의 마련이 필요

- 단일한 표준과 모범사례(best practice)는 공공의 데이터에 대한 위험과 애플리케이션의 사용 확대를 동시에 고려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에 의한 표준의 개발은 이해관계자들간의 합의 도출과 적극적 사용 확산에 기여
- 그러나 정책 입안자들은 프라이버시 및 보안과 표준의 수립에 따르는 비용 간의 균형을 모색해야 하며, 프라이버시 관련 요구 조건의 실행에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법적 장치를 고려한 유연한 정책 추진이 필요
- 따라서 미국 내의 표준과 관행이 법집행이나 외국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 정책 입안자들은 이 애플리케이션의 효과성을 측정하고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모범사례(best practice)의 보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의 개발과 사용에 의해 구축된 모범사례들은 관련 당국으로 하여금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을 확대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신속한 인증 번호의 발급을 통해 각 주 정부의 공공 보건 당국이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기여
- 또한 보건 당국이 앱의 사용과 확진자 노출 정보 통보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모범사례의 구축을 위해서는 시민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컨센서스 도출이 선결
- 모범사례의 구축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작업이며, 현재의 모범사례가 향후 다가올 수 있는 팬데믹 상황에서 효과가 제약될 수 있고,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경우 모범사례의 구축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

■ 정책 입안자들은 팬데믹 상황에 대처하는 전국적 차원의 전략과 확진자 노출 통보 애플리케이션의 개발과 사용 확대에 협력하는 구조를 발전시키는 정책 방향이 필요

- COVID-19의 대처 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경험은 전국적 협력을 도출하고 보다 신속한 애플리케이션의 사용 확대에 기여
- 애플리케이션의 사용 확대를 위해 전국적 차원의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고, 미국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이 필요
- 그러나, 이러한 전국 규모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며, 다양한 관점을 가진 이해관계 집단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
-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들이 주 정부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에 비해 전국적 규모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어느정도 신뢰성을 가지는지는 아직까지 불명확한 단계

[GAO, 2021.09.09.]



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AI·ML를 활용하여 만성질환 관리 개선 추진

■ 미국은 성인인구의 60%가 심장질환, 천식, 알츠하이머, 신장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는 △국가보건시스템에 심각한 부담 △의료 서비스의 역량 저하 △질병 관리비용의 상승 등 문제를 야기하여 예방·진단·치료·관리에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ML)과 같은 첨단 기술을 적용

- AI와 ML 기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규제 변화와 함께 데이터의 질과 보안과 관련된 문제점 개선이 필요

* 스마트폰의 보급과 웨어러블의 사용 확대, 인터넷으로 연결된 진단 의료기기의 보급 등은 AI와 ML 기술을 만성 질환에 적용하기 위한 조건과 플랫폼 및 생태계 구축에 기여

- 디지털 전환을 통한 헬스케어에 기반하는 글로벌 당뇨병환자관리 전문기업 아센시아(Ascensia)는 혈당측정기기와 전자의료기록을 통합하여 실시간으로 환자의 상태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적절한 치료계획과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제시
- 클라우드 컴퓨팅에 기초한 대량의 데이터 처리 역량이 확보됨에 따라 AI가 환자 개인에게 특화된 치료 계획을 제시하고 치료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헬스케어 생태계에서 AI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

[MDDI Online, 2021.09.26.; World Economic Forum, 2021.10.01.]

미국, 농촌지역 원격의료 서비스가 직면하는 장애요인

■ 미국의 응급실(ED) 원격의료 서비스는 농촌에 소재한 소규모 병원에 유용한 방법이며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있지만 현행 의료보험 체계에서 의료보험에 의한 의료비 환급금 수령의 어려움과 높은 비용 등은 원격의료 서비스가 확대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

- '21년 8월에 개최된 '미국의학협회지 보건포럼(JAMA Health Forum)'에서 제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응급실 자원이 부족한 농촌 지역의 소형 병원에 원격의료 확대가 시급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에 따른 환급금 수령의 어려움과 적은 환자수라는 한계에 직면
- 원격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1만 7천~5만 달러에 달하는 장비 구입 및 인터넷 연결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매년 유지 관리 및 통신 관련 비용으로 3천~8천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환급 어려움 등 원격 의료 적용에 다양한 제도적 장애물이 존재

[mHealth Intelligence, 2021.08.31.; JAMA Network, 2021.08.27.]

영국 MHRA, 소프트웨어 및 AI 기반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프레임 제공

-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은 소프트웨어 및 AI 기반 의료기기(software as a medical device, SaMD)에 대한 제반 요구사항에 대하여 '21년 가을부터 '23년 여름까지 총 11개의 작업 프로그램(Work Programme, WP)을 통해 핵심 요소를 제공할 계획
 - WP 활동을 통해 SaMD를 사용하는 환자와 대중들에게 높은 수준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제반 요구사항들을 반영하여 SaMD가 안전하고 유효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할 예정
 - MHRA는 규정간 충돌이 있을 경우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와 국민보건서비스(NHS)의 디지털 혁신부서인 NHSX 등 주요 파트너와 협력하여 제반 요구 사항을 조정, 중복 제거 및 결합하여 궁극적으로 영국 내 디지털 건강을 위한 결합 제안을 제공
 - SaMD 프로그램은 각각 세 가지 핵심목표가 포함되어 있는 11개의 WP로 구성되어 있으며, WP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변경사항, 일정표 등은 향후 몇 달 이내에 제공할 예정

[GOV.UK, 2021.09.16.]

제약업계, 고객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변혁 필요

- 제약업계는 이전부터 제품기반의 영업에서 보다 고객 중심이고 가치에 기반을 둔 참여로 이행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했고 COVID-19 팬데믹은 업계에 신속한 변혁을 요구하는 상황
 - 업계의 이러한 트렌드 변화는 고객니즈를 더욱 다양하게 만들기 때문에 접근방법을 쇠신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고객니즈를 흡수하면서 고객경험에 포커스를 두는 마케팅 및 부문횡단적인 고객참여(customer engagement) 변혁이 필요
 - 많은 기업은 기술도입 등 고객참여 변혁에 이미 착수하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는 데는 다양한 과제가 있으며 제약회사는 새로운 고객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전체적인 비전,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콘텐츠가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
 - 향후 고객참여는 △효과적인 '인바운드' 마케팅 △고객그룹이나 제품에 맞춘 적절한 '아웃바운드' 참여 모델을 통합적으로 조합한 형태가 될 전망이며, '인바운드' 마케팅은 유의미하면서도 계몽적이고 혁신적인 콘텐츠를 신뢰성 높은 플랫폼을 통해 제공
 - '아웃바운드' 고객 참여 모델은 옴니채널 편성을 통한 커뮤니케이션부터 신뢰에 기반한 파트너십까지 가상과 대면 커뮤니케이션 채널 모두를 다양한 상호작용 형식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지역 동업자와의 P2P미팅, 문제해결 워크숍 등을 포함

[Strategyand, 2021.08.31.; PwC, 2021.08.24.]

디지털 기술, 보건의료 분야의 불공정성 문제에 도전

■ 디지털 기술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불공정성을 형성하는 원인인 △신뢰도 높은 의료 정보의 부재 △의료 전문가 부족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부족 △공공 의료 시스템과 서비스 △과다한 의료비 지출 문제 등의 해결방안을 모색

- 개인의 건강 정보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정밀성의 부족 등의 문제는 결국 보건의료시스템의 자원 낭비와 비효율적 정책 개입 등으로 귀결되는 상황을 메시지 플랫폼에 기반하여 적절한 의료정보 제공이나 상황에 부합하는 의료적 개입 등이 가능
- 세계적으로 '30년까지 1,800만명의 의료인력 부족은 인공지능(AI) 기반 의료의사결정시스템으로 극복할 수 있으며, 의약품과 백신, 진단기기 및 다양한 의료기기의 부족 현상은 디지털 도구를 이용하여 공급망을 단순화하고 공급 부족 상황을 예측하여 유연하게 대처
- 저개발 국가의 경우 인구 규모에 맞는 공공 보건 시스템과 서비스가 부족하며, 의료 관련 데이터 역시 제공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러한 상황을 기존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최신 의료 정보나 질병 예방법을 맞춤형으로 제공 가능
- 전세계적으로 9.5억에 달하는 인구가 가구 소득의 10%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1억명 이상의 인구가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접근이 쉽고 투명한 보험 설계가 가능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통해 과다한 의료비 지출에 의한 빈곤의 위험을 극복

[World Economic Forum, 2021.09.08.]

AI, 임상치료분야의 적용 실태

■ 미국 랜드연구소(RAND)가 보건의료 분야의 인공지능(AI) 적용과 관련된 광범한 문헌 연구와 분석을 진행한 결과, 영상의학 분야를 제외한다면 아직까지 의료 분야에서 AI 기술의 적용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관심 수준에 비해서 실제 현장에서 사용빈도는 높지 않은 상태라고 분석

-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가까운 미래에 사용할 수 있는 109개 비영상의학 분야의 적용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심혈관질환, 당뇨병 및 일반 환자 진료 분야에 적용
- AI 기술의 의료 분야 적용에 대한 효과를 검토한 결과, AI 기술의 위해성을 언급한 연구는 사실상 찾기 어려웠으며, 향후 보다 높은 수준의 인공지능 적용에 대한 평가가 요구
- 많은 의료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은 AI 기술이 의료 분야에 광범하게 확산될 경우, 통계적 편이, 프라이버시의 침해나 해킹과 같은 위험 등을 향후 발생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으로 인식

[RAND, 2021.08.26.; Managed Healthcare, 2021.08.26.]



4대 보건산업

미국 Merck, COVID-19 최초 경구용 치료제가 입원을 약 50% 감소

■ 미국 제약사 머크(Merck)사와 리지백 바이오테라퓨틱스(Ridgeback Biotherapeutics)사는 공동개발 중인 경구용 COVID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molnupiravir)가 3상 임상시험 중간결과에서 중증 환자의 입원·사망 위험을 약 50% 감소시켰다고 발표

- COVID-19 환자 77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시험에서 molnupiravir 투약자 중 7.3%만이 입원한 반면 위약 투여군은 2배가량인 14.1%가 입원했으며, molnupiravir 투약 그룹 중 사망자는 없는 반면 위약 투여군 가운데에는 8명이 사망
- 정제(tablet) 형태인 molnupiravir는 COVID-19 환자에게 하루에 두 번 제공되었으며 앞으로 2주 안에 미국에서 긴급사용승인(EUA)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발표
- Merck는 COVID-19를 치료하는 알약의 시험 결과를 보고한 최초의 회사이지만 미국 경쟁사인 화이자(Pfizer)가 최근 두 가지 다른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임상 2/3상 시험을 시작했으며 스위스 회사인 로슈(Roche)는 유사한 약물을 개발 중
- Merck는 '21년 말까지 1천만 치료주기(courses)분의 molnupiravir를 생산할 예정이며, 미국 정부는 식품의약품(FDA)의 승인을 받을 경우 12억 달러 상당의 약을 구매하기로 사전 합의

[BBC, 2021.10.02.; Merck, 2021.10.01.]

미국, 팬데믹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5대 계획 발표

■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미래의 생물학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과학 기술과 핵심 역량을 구축하는 '미국의 팬데믹 대응: 역량의 전환(American Pandemic Preparedness: Transforming our Capabilities)'이라는 기치 하에 미션(Mission) 관리 등 5개 영역의 계획을 제시

- 미국의 의료방위체제 전환을 위해 백신과 치료제 및 진단기기와 같은 미국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이며, 조기경보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을 위한 감염병 위험 관련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
- 미국과 국제사회 모두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불평등 감소와 가장 취약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보건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며, 개인보호장비, 의료 관련 자원의 공급망과 비축량 확보, 바이오안전과 바이오보안, 규제 개선을 포함하는 핵심 역량을 구축할 예정

[The White House, 2021.09.03.]

유럽 EC, HealthyLifestyle4All 캠페인 개시

■ EU집행위원회(EC)는 유럽의 건강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세대와 사회 단체를 통해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홍보하기 위한 ‘만인을 위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HealthyLifestyle4All)’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발표

- 스포츠와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을 건강, 음식 및 기타 정책과 연계하고 향후 2년동안 전개될 이 캠페인은 시민사회, 비정부 기구, 국가, 지역 및 지역당국 및 국제기구 등이 포함될 예정
- HealthyLifestyle4All 캠페인의 주요활동들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인식 제고 △스포츠, 신체 활동 및 건강한 식단에 대한 접근성 개선 △식품, 건강, 웰빙 및 스포츠를 연결하는 정책과 부문 전반에 걸쳐 글로벌 접근방식의 촉진 등 세 가지 목표를 지원
- EC가 이 캠페인을 추진한 배경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이 보건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비전염성 질환(Non-communicable diseases, NCD)’의 발병률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며, 식습관과 생활 방식 등에 발병되는 암의 40% 이상이 라이프스타일 개선으로 예방 가능

[European Commission, 2021.09.24.]

유럽 EC, 보건의료시스템 접근성을 측정하는 도구 개발 필요성 강조

■ EU집행위원회(EC)는 ‘유럽 사회적 권리 지주(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의 제16조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보건의료시스템 접근에 대한 보다 정밀한 측정 도구 개발을 통해 의료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는 장애요인을 파악할 필요성을 보고서를 통해 제시

- 의료 시스템 접근의 문제점 측정에는 의료보험 시스템의 적용 범위, 의료기관 대기 시간, 예기치 못한 의료 수요에 대한 대응, 고비용 의료 행위에 대한 분담 비율 등 다양한 측면이 존재
- 이러한 의료 서비스 접근의 불공평성에 대한 측정을 통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의 포괄 범위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함께, 사회경제적 요인과 의료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환자 중심의 보건 의료 시스템 구축에 기여
- 환자 사례 중심의 접근법을 통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평가한 결과, 유럽의 보건의료 시스템의 접근성을 평가하는 개선된 측정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며, 의료보험 포괄 범위의 효과성이 보건 수준을 제고하고 탄력적인 시스템 구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
- 향후 개발되어야 하는 새로운 측정 도구는 보건 의료 서비스의 접근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포착하고 보다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보건 의료의 수준 제고와 함께 가장 취약한 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 2021.08.27.]

WHO 유럽, COVID-19와 대응과정에서 얻은 교훈 제시

■ 세계보건기구(WHO) 유럽 지역 사무소는 COVID-19의 팬데믹 발발 과정과 이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얻은 10가지 교훈과 미래의 대응 방향을 정리하여 발표

- COVID-19는 △사회의 모든 부문, 특히 사회경제 시스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EU 회원국 간 보건위기상황에 대처하는 역량 차이가 크게 존재하며 △보건위기대응 시스템은 전염병의 발발 이전에 사전적으로 작동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제공
- 또한 △과학적 발견이 바로 접근 가능한 공공보건 관련 자원으로 전환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하며 △보건정보를 이용하여 즉각적이고 강력한 의료 조치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하며 △보건의료 시스템과 위기대응 역량 간의 긴밀한 상호 연계 인식이 필요
- 그리고 △모든 위기대응행동은 높은 신뢰 수준을 가진 사회적 계약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며 △응급 공공의료 서비스와 의료 시스템 전반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고 △헬스케어 분야의 인프라와 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하며 △위기 대응 이후의 회복역량 확보가 필요
- 유럽은 법과 제도적 메커니즘을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과 위기 이후의 회복력 증대에 초점을 맞추어 명령-통제-협력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기술적 핵심 역량 확보에만 초점을 맞추는 형태가 아니라, 대응 역량 자체를 확대하는 방법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

[WHO/Europe, 2021.08.30.]

아프리카, 의료 환경의 변화와 의료기기 비즈니스 가능성

■ UN이 전망한 '50년 아프리카 대륙의 인구는 현재의 약 2배인 25억 명으로, 지금은 인구가 급증하는 아프리카 대륙의 의료환경 변화를 확인하고 관련 비즈니스 가능성을 모색할 시기

- 아프리카 의료체제는 여전히 취약하지만 세계 3대 감염병인 HIV/AIDS, 결핵,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는 크게 줄었고 COVID-19가 새로운 문제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아프리카의 의료환경은 서서히 개선되고 있는 상황으로 단 일부 국가는 당뇨병 같은 소위 현대병이 급증
- 인큐베이터 등의 시장은 향후 고령화되는 선진국이나 중국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아프리카로 이동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소아용 의료물자·기기 업체는 신속하게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
- 인공호흡기, 산소농축기, PPE, 집중치료실(ICU), 백신보관용 냉장고 등은 감염증과 무관하지 않은 아프리카에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제품으로 수요가 장기간 지속될 전망
- 당뇨병 등의 현대병이 급증하고 있어 투석기나 당뇨검사장비는 엄청난 수요확대가 예상되며 실제로도 이는 최근 아프리카 의료기기 바이어의 수요가 가장 많은 분야

[JETRO, 2021.09.09.; 在南アフリカ共和国日本国大使館, 2021.02.10.]

화장품 산업, 일본과 한국의 동향 비교분석

■ 최근 한국과 일본의 화장품 수출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일본은 대형 브랜드의 중국 수요가 급증하고, 한국은 다양한 국가로 수출이 증가하고 신흥기업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

- 일본의 화장품 수출액은 '15년부터 급증해 '20년까지 5년간 3.6배로 확대됐으며 對중국 수출액은 지난 5년간 10배 이상으로 확대됐는데, 대형 브랜드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수출수량 당 금액이 한국과 프랑스의 2배 수준으로 높다는 점이 특징
- 한편 신흥기업이 약진하는 한국 화장품 산업의 성장은 △정책 지원 △강력한 ODM/OEM의 존재 △전자상거래(EC) 이용증가 △디지털 마케팅 기업의 성장 △개인 인플루언서의 지원이 복합적으로 기여
- 쿠션파운데이션이나 CC크림 등 기존에는 없던 콘셉트의 상품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상품보급에도 ODM/OEM 개발력과 제조능력이 크게 공헌
- 한국은 스킨케어 용품의 EC비율이 '20년 30%를 넘어 오프라인 점포 전체의 판매비율과 비슷한 수준에 있고 EC를 판로로 활용해 신흥브랜드가 성장하면서, 국내 소비시장의 디지털화에 적응한 기업이나 크로스보더로 디지털 마케팅을 지원하는 기업도 성장

[三井物産戰略研究所, 2021.08.28.; 矢野經濟研究所, 2021.08.01.]

동남아시아 국가들, '위드 코로나' 정책을 추진

■ 최근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COVID-19 종식'이라는 전략에서 '위드 코로나(living with the disease)' 정책으로 선회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 증가하는 추세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및 베트남은 싱가포르의 로드맵을 따라 팬데믹(pandemic) 대응에서 엔데믹(endemic) 대응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앞서 강력한 봉쇄(lockdown) 통제 정책을 구사했던 유럽, 영국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미 실시
- 인도네시아는 백신 접종 카드를 제시하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말레이시아는 정기 검진과 마스크 착용 준수를 전제로 하는 장기 계획을 작성하고 있으며, 태국은 국내선 항공 재개를 필두로 일부 경제 활동을 허용
- 그러나 최근 백신 접종률이 높은 싱가포르나 미국, 이스라엘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동남아 지역 국가들의 경제활동 재개는 앞으로 COVID-19의 재확산 등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제기

[Diplomat, 2021.09.07.; The Straits Times, 2021.09.09.]